

식민지 도시공간의 일상과 ‘샐러리맨’의 재현양식*

— 김남천의 식민지 말 소설을 중심으로

박 형 진**

요약

이 글은 총동원체제기 김남천 소설에 등장하는 ‘샐러리맨’(봉급생활자)의 표상을 전시 통치성과 자본주의적 노동력 배치의 교차점이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고자 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조선에 급증한 화이트칼라 및 기술직 샐러리맨 군상은 농민·노동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계급적 멘탈리티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부르주아적 문화생활과 합리성을 지향하면서도 회사 조직 내부의 차별과 일상의 만성적 빈곤 속에서 자조와 불안을 통과하는 모순적 주체들이었다.

김남천은 「바다로 간다」, 「T일보사」, 「구름이 말하기를」 등의 작품을 통해 이러한 샐러리맨의 내면을 지배하는 ‘속물근성’과 ‘편집증적 열등감’을 사실적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당대 경성을 뒤흔든 광산 붐, 주식 투기, 그리고 전시 생산력주의가 어떻게 피식민지인의 내면에 물신주의를 각인시키고 그들의 신체를 노동력으로 포획·재배치했는지 포착해 냈다. 특히 이 인물들이 일상의 안위와 개인적 수양의 담론으로 함몰되는 양상은 매우 징후적이다. 이들은 통제경제의 틈새에서 경제적 생존과 입신출세를 모색하는 ‘경제적 인간(homo-economicus)’의 도래를 선언하면서도 그 종착지가 어떤 파국을 품고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다.

김남천이 재현한 샐러리맨의 표상은 식민지 시기의 일시적인 세태 묘사를 넘어, 해방 후 남한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주도한 화이트칼라 엘리트층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주체의 한국적 기원’을 추적하는 데 계보학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3S1A5B5A17088595).

**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적 단초를 제공한다.

주제어: 김남천, 노동력, 샐러리맨, 일상, 총동원체제

목차

1. 총동원 체제와 식민지 샐러리맨이라는 문제
2. 혁명가의 ‘공포시대’, ‘샐러리맨’의 전성시대
3. 노동력으로서의 경험
4. 고향으로부터의 이탈
5. 결론

1. 총동원 체제와 식민지 샐러리맨이라는 문제

이 글은 193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근대문학에서 서사의 주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샐러리맨’(봉급생활자)의 표상을 검토함으로써 총동원 체제 하에서 형성된 ‘경제적 주체’의 존재 양식과 노동력의 배치 양상간의 연관을 추적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샐러리맨은 자본가도 노동자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서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계층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샐러리맨’은 ‘노동자’와 ‘소비자’라는 두 정체성이 혼재되어 도시의 자본주의 소비문화 주변을 배회하는 존재로서 서사 안에 포착되고는 했다. 하지만 식민지 말의 인적 동원과 국책으로서의 소설 양식이 중첩되는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식민지 조선의 ‘샐러리맨’은 고도국방국가 체제 안으로 휘말려 들어가거나, 그 한가운데에서 노동과 생활을 모색하는 인간형으로 전화되어 나간다.

식민지 조선의 ‘샐러리맨’을 문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 글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총동원체제가 김남천의 소설이다. 김남천은 “우리와는 아무런 공통된 사색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다른 개념과 범주를 가지고 세

계를 해석하고, 통하지 않는 술어로 이야기하는”¹⁾ 토목기사 'K'를 새로운 인간형으로 등장시킨 「길 위에서」(1939) 이래, '도시'와 '봉급생활'을 축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도시의 '샐러리맨'을 중요 인물군으로 부각시켰다. 예컨대, 「바다로 간다」(1939. 5. 2.~6. 15)에서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선생'과 철도부설 관계로 만주행이 예정되어 있는 '박광일'이라는 토목기사가, 「T일보사」(1939. 11)에서는 신문사 영업부 '샐러리맨'이 된 '김광세'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또한, 『낭비』(1940.2~1941.2)에서는 '동양은행 본점 지배인' '백인영'²⁾이 '학문'과 '자기'의 세계에서 고민하는 '이관형'의 반대편에 배치되는가 하면, 「경영」(1941. 2)과 「맥」(1941. 2)에서는 각각 증권회사 조사부원과 아파트 사무원으로 설정된 '최무경'이 전향 사회주의자 오시형과는 다른 도시의 우울을 체현한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주목해 볼 것은, '샐러리맨' 계층에 대한 김남천의 관심은 도시 풍속 묘사의 소재로 그치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 역사와 특성을 그 자체로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려냈다는 점에 있다. 1940년 11월 『조광』의 '작중인물지'라는 특집에 원고를 의뢰받은 김남천은 『대하』, 『사랑의 수족관』, 『낭비』, 「T일보사」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의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성격 등을 열거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두었다.

이미 발표된 작품 중 금후에 창작될 작품에 재등장시킬 인물에 한하여 인명록을 꾸며 둔 것이 있으니까 이제 노트를 내어놓고 그것을 약간씩 제삭(際削)해서 소청대로 여기에 옮겨보기로 한다. (중략) **작품 중에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소설을 쓰는 날까지 그들은 나의 주위에서 살아나가고 있을 것이다.** 직업과 연령은 작품에 나왔을 때의 것이니까 그것을 주의

1) 김남천, 「길 위에서」, 『맥』, 문학과지성사, 2006, 211면.

2) '백인영'은 중인집안에서 태어나 동경에서 고등상업을 마치고 조선은행에 들어가 전금을 거둬한 끝에 지배인에까지 오르는데, 은행업무의 정통자일 뿐만 아니라 '책사'로서 조선의 계계를 움직이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하여서 보아주기 바란다. 예컨대 『대하』의 박성권은 그 때(광무 8년)에는 40세였지만 쇼와 15년(1940)에는 74세의 노옹일 것이다 등등.³⁾(강조는 인용자)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를 지역의 고리대금업자로서 개화기의 신흥 부호로 떠오른 박성권과 그의 가족들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전개한 『대하』는, 조선에서 상인자본의 축적과 ‘반노농적 토지소유 관계’가 결합되는 양상을 서사화 한 것이었다. 김남천은 박성권이 1940년에도 조선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도,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사랑의 수족관』과 『낭비』 등에서는 새로운 자본가 유형을 제시하였다. “대흥콘체른 사장. 대흥상사, 대흥토지개발, 대흥신탁, 대흥광업의 사장 서전조(西田組)의 중역”인 이신국(『사랑의 수족관』)과 “동서은행 취체역 본점 지배인”인 백인영(『낭비』)은 『대하』의 박성권과 대응되는 인물인데, 두 작품에서는 이들 기업자본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본 축적과 산업구조를 은밀하게 드러내면서, 그 근거리에 있는 인물들의 ‘연애’와 ‘입사’의 드라마를 그려냈다. 이 구도에서 보면 박성권에서 이신국, 백인영으로의 이동은 시골(성천)에서 도시(평양, 경성)로의 자본의 이동과 금융자본의 기업화라는 조선 사회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구상한 결과이다. 당연히기도 전자에는 식민권력과 자본이 후자에는 전시체제와 경기가 개입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서 노동력으로서 동원되는 식민지인들의 이동과 교섭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업자본가를 중심으로 연결된 인물 중에는 몇 가지 유형의 ‘샐러리맨’들이 존재한다. 『사랑의 수족관』의 주인공인 김광호는 교토 제국대학 출신의 “주식회사 서전조의 토목기사”로서 이상과 대의를 축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숫자의 세계 속에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며, 대흥상사의 비서과장인 송현도는 이신국을 보좌하면서 출세를 노리

3) 김남천, 「직업과 연령」, 『김남천 전집 I』, 정호웅·손정수 편, 박이정, 2000, 643면.

는 “성공욕에 불타는 청년”으로 회사 생활과 이경희와의 연애에 개입하며 대립한다. 특히 송현도는 고향에서 고학하다 상경한 인물로 회사에 취직함으로써 신분 상승을 꿈꾸고, 마침내는 대흥콘체른을 장악하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김남천 소설의 ‘샐러리맨’들은 “군수품 경기와 광산열이 엮힌”⁴⁾ 종로와 평양 거리를 거닐거나, 동경, 미국, 만주 등지를 무시로 오가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전시체제 하의 국책사업과 기업과의 결합에서 온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식민지 말 김남천 소설에 등장하는 ‘기술자’나 ‘자본가’형 인간은 ‘샐러리맨’이라는 특정한 도시 계급의 생활양식과 멘탈리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인 동시에, 전시체제 하의 산업정책과 인적·물적 이동을 체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남천의 ‘샐러리맨’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상되고 성격 지워졌던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창작방법론’으로서 ‘풍속문학론’을 제창했던 김남천은 ‘몰아적 객관성’의 태도로 ‘현대의 풍속’을 포착하려 하였다. 작가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물의 전형성에 다가가고 하는 방법은 발자크 연구를 통해 심화되는데, 이를 통해 얻은 결론 중 하나가 ‘속물적인 것’의 구현이었다. 김남천은 발자크 소설에 등장하는 악당과 편집광의 전형들을 탐구함으로써 “속물성을 비웃는 인간이 아니라, 속물 그 자체를 강렬성에서 구현하고 있는 인물을 창조”⁵⁾하려고 하였다. 발자크의 위대성은 “아비하고 비속한 것이라고 예술의 세계로부터 축출하였던 것을 용감히 그의 문학의 대상으로 끌어들었다는 데”⁶⁾ 있었으며, 이러한 인물이야말로 자본과 상품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중심으로 재구축되는 일상과 사회를 극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김남천은 이러한 ‘세태=사실=생활’ 중심의 구

4) 김남천, 「바다로 간다」, 『조선평보』, 1939. 5. 2.

5) 김남천, 「성격과 편집광의 문제: 발자크 연구 노트2」,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550면.

6) 김남천, 「관찰문학소론」,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 595면.

상 속에서 “인물로 된 이데”를 체현하는 인물을 추적해나가는 작품들을 연작 형식으로 써내려 나갔던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전환기가 산출하는 각층의 대표자의 개별적 성격 창조를 통하여 역사적 법칙의 폭로에 도달하는 문학의 방법”⁷⁾을 모색했던 김남천의 작업과 그 결과물은 프로문학의 퇴조와 전향 국면 이후 새로운 주체의 모색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석되어 왔다.⁸⁾ 차승기는 이를 이어받으면서도 김남천의 문학적 대응이 총동원체제 하에서 개인들을 ‘국민적 주체’로 육성하고 동원하려는 식민 권력을 향한 것이자 새로운 질서가 안착되지 못한 ‘전환기’를 내부로부터 초월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논증한 바 있다.⁹⁾ 하지만 ‘기술자’ 유형의 ‘샐러리맨’과 이를 그려내는 김남천의 ‘기술(記述)하는 기술자(技術者)’라는 위치는 전시동원 체제의 ‘직분의 윤리’를 체화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평가¹⁰⁾ 이래, 이들은 ‘근대성’을 내면화한 인간이되, 이전과 같이 결집하고 저항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해석되었다. 황지영은 김남천이 주조해 낸 인물 유형이 ‘계산 가능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적 인간(homo-economicus)’의 형상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근대적 주체로서 소설을 추동해 나가는 활력을 제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총동원 체제 하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체현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¹¹⁾

한편, 국가에 의해 등기된 노동과 윤리의 재현이 아니라 식민지 말의 도시적 생활과 다국화 된 소비양식, 국제적 이동에 주목하는 논의들은 식

7) 김남천, 「명일에 기대하는 인간 타입」,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 615면.

8) 채호석,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소명출판, 1999.

9) 차승기, 「임화와 김남천, 또는 세대와 풍속의 거리-1930년대 후반 전환기의 문학적 대응들」, 『현대문학의 연구』 25,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10) 위의 글, 111면.

11) 황지영,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경제적 인간’ 연구」,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232면.

민권력의 폭력이나 전시상황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내과하하면서 제국의 틈새를 탐색해 왔다. 하신애는 식민지 말 소설에 등장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실천consuming practice of everyday life'을 통한 제국 체제로부터의 이탈에 주목하면서,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행위주체로서의 위치"가 가지는 탈중심적 위상을 부각시킨 바 있다.¹²⁾ 그에 따르면 "자본의 흐름은"민족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가교환 및 사유화의 속성에 의거함으로써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국적이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계시장'의 영역으로 거주지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제국보다 넓은 행보를 지닌 코즈모폴리탄으로 존재하도록 부추겼다."¹³⁾ 이러한 해석은 생산과 통제가 강조되던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보다는 소비에 관심을 두고, 도시를 확보하는 인물이 가진 초월적 가능성을 주목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블록화와 통제경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대동아공영권으로의 전환이 역설적으로 권역권 내의 자본 이동이 극대화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산업화가 도시화가 다각도로 추진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이 틈새 속에서 피식민지인은 소비와 이동을 통해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주체로서 거듭나게 된다.

'노동'과 '소비'를 오가지만 언제든 집단적 주체되어 대항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도, 노동을 거절하고 '소비'만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온전한 '소비자'도 될 수 없는 '샐러리맨'의 형상이 가진 문제성은 여기에 있다. 단적으로 말해, 식민지 말의 김남천 소설에 등장하는 '샐러리맨'은 전시체제를 초월하거나 균열을 내는 존재로서 그려지지 못했다. 기왕의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김남천의 창작방법론이 가진 한계일 수도 있으며, 제국의 통치 시스템이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주체들이 체제를 초월할 수 있는 역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체제 하의 인

12) 하신애, 『아시아 트러블』, 엘피, 2018, 198-199면.

13) 위의 책, 191면.

적·물적 동원 속에서 이들이 노동력으로 포획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에 있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더불어 신체를 노동력으로 치환해나가는 것이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작동방식이자 식민지인의 근원적인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때, 전시체제기의 ‘샐러리맨’이 가닿게 되는 장소와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이 표상이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 경제적 주체로서의 각성, 반복되는 일상의 영위에서 구성되는 내면이 교차·중첩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총동원 체제 하에서 ‘샐러리맨’이 서사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국면을 살피는 작업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샐러리맨’이라는 새로운 인간형과 직업군의 등장이 당대의 어떠한 담론과 결합되고 있었는지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에서의 작동방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2. 혁명가의 ‘공포시대’, ‘샐러리맨’의 전성시대

‘샐러리맨’은 보통 관리, 교원, 회사원 등을 포함하는 ‘화이트칼라’ 직군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주역으로 포착되고, 하나의 계층으로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독일에서부터였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국가 관료 기구가 팽창하면서 ‘육체노동자(Blaukittel)’와 구분되는 비노동 유급 종사자들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경제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와 수공업자로 이루어진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기업의 사무직으로 대거 유입되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¹⁴⁾ 이들은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의 ‘앙게슈텔레(Angestellte)’라고 불렀

14) 독일은 제1차세계대전 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근대적 경제체제에 진입하면서 재정상황이 궤멸되는 지경에 이른다. 이러한 특수한 경제적 사정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는데, 노동복 대신 정장을 입고 출근하며, 노동자의 '임금(Lohn)'과는 달리 매달 고정된 '월급(Gehalt)'을 받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계급적 특징을 공유했다. 경제적으로는 노동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자신을 부르주아 계층과 동일시하며 노동 계급과는 거리를 두려는 모순된 정체성은 부르주아 전통문화가 급격하게 대중문화로 재편되는 문화적 변동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공황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보다 먼저 해고되거나 급격한 지위 하락을 겪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식인'과 '샐러리맨'을 포함한 중산 계급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불안 심리¹⁵⁾는 나치즘이 파고드는 토양이 되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는 당대 독일의 신흥 중산계급의 정신적인 공황 상태와 계급적인 특징을 그려내면서 '샐러리맨(Angestellte)'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황혼을 상징하는 존재로 부상시켰다. 크라카우어에게 베를린은 '샐러리맨 문화로 채워진 도시'였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일상생활은 '미지의 장소'로 남겨져 있었기에, '모자이크'와 같은 르포르타주로서만 그려질 수 있었다.¹⁶⁾ 그에 따르면 전

시절 직장인 도시대중의 "프롤레타리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당시 노동자 연대 그룹들은 이러한 직장인을 노동자 계급운동에 포섭하고자 했고, 다른 한편 시민주의적 연대 그룹들은 교양문화와 국민국가의 통합적 이념으로 이러한 직장인 대중의 위기를 봉합하려고 시도했다. 직장인 대중이 사회주의적 측면에서는 "노동자"로, 시민주의적 측면에서는 "신중산층"으로 서로 달리 규정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이야기된다. 이창남, 「베를린 직장인의 문화적 유목 - 크라카우어의 1920-1930년대 에세이들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144, 한국독어독문학회, 2001, 183면.

15) 피터 게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퍼져나간 불안을 '전체성의 갈망'이라고 명명하였다. 민족, 영도자, 유기체, 국가, 결정, 공동사회 등과 같은 추상체에 관한 담론의 증대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이같은 불안을 가장 극심하게 느꼈던 계층 또한 지식인과 도시 중산계급이었다. 피터 게이, 조한욱 역, 『바이마르 문화』, 고유서가, 2001, 4장 참조.

16) 해리 하르투니언은 크라카우어가 '샐러리맨'의 일상의 역사를 구출하는 방법으로서 르포르타주 형식을 차용했다고 본다. 르포르타주는 단순히 '관찰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생'

문직에 종사하는 도시의 중산계급은 ‘그들의 시대에 대한 기민한 감각을 유지’함으로써 충분한 부와 문화자본을 획득했지만, ‘어떤 특정한 신념도 갖지 못했으며’ 의미를 공유하는 어떤 공동체로도 결집하지 못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도시 중산층은 일상 속에서 ‘내적 존재’를 망각한 채 대부분의 날들을 고독하게 살아간다. 이는 ‘세계 안에 어떤 의미’도 부재한다는 사실과, ‘목적 없는 목적성’으로부터 기인하는 형이상학적 불안 때문이다. 의미를 상실한 채 상품으로 식민화된 일상세계에서 인간 주체는 “텅 빈 시간과 공간의 차디찬 무한 속에 던져졌다”¹⁷⁾ 대도시의 꿈과 파국을 동시에 상징하는 크라카우어의 ‘샐러리맨’은 주어진 현실을 바꾸어 내지도 미래를 찾지도 못하는 근대 사회의 우울을 그 자체로 표상하면서, 동시에 도래할 수 있는 미래의 주체로서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샐러리맨’은 1920년대에 ‘봉급생활자’ ‘월급자’ 등으로 불리우며 비교적 고학력의 사무계열 종사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등장했다. 이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1918년 설립된 도쿄봉급자동맹회협의회가 영어로 샐러리맨 유니온(salary man union)이라고 칭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1928년 마에다 하지메(前田一)의 『샐러리맨 이야기(サラリーマン物語)』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 보편화되었다.¹⁸⁾ 이전까지 ‘봉급생활자’, ‘샐러리맨’, ‘지식계급’, ‘중등계급’, ‘중류계급’, ‘신중간계급’ 등으로 규정되었지만 명확한 계급적 특성이 부여되지는 못했다.¹⁹⁾ ‘샐러리맨’이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개조(改造)』에 게재된 아오노 스에키치(青野季吉)의 「샐러리맨의 공포시대와 그 해방」이라는 글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서술방법이다.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역, 『역사의 요동-근대성,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휴머니스트, 2006, 183~184면.

17) 위의 책, 186~187면.

18) 김영숙, 「일본 근대 소비자의 탄생, 샐러리맨 가정의 생활과 교양」, 『이화사학연구』 41, 이화사학회, 2010, 27~28면.

19) 다니하라 쓰카사, 이은주 역, 『샐러리맨의 탄생』, 소명출판, 2025, 58면.

서였다. 아오노 스에키치²⁰⁾는 『샐러리맨의 공포시대(サラリーマン恐怖時代)』에서 “샐러리맨 계층의 사회적 조건을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라는 문맥”²¹⁾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크라카우어가 직장인을 ‘정신적으로 집(고향) 없는 자’, 즉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자로 표현했다면, 아오노는 ‘주어진 교양에서 오는 정신적 망상’을 겪는 이들로 정의하였다.²²⁾ 직장인 계층이 겪는 고통의 핵심은 노동자 계급과는 달리 ‘정신적’ 측면에 있다. 샐러리맨의 고난의 정신적 계기는 “프롤레타리아화된 현실과 부르주아적 심리적·정신적 측면 또는 봉건적 습성과의 모순”에서 오는 고난이다. 이 모순은 샐러리맨의 특수한 심리적 측면에서 온다. 샐러리맨에게는 “생활상으로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즉 문화적으로 평화롭고 싶다는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심리상으로는 차분하고 낙천적으로, 밝고 화목하게, 화락적(和樂的) 기분으로 지내고 싶다는 것이, 이 사회 계층의 독특한 특성이다.”²³⁾ 이들은 엄청난 사회적 성공이나 정치적 명예를 바라지 않지만 질 낮은 생활수준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 중간 경계 어딘가에서 적당히 교양 있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차별하며 지식을 가진 계층으로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아오노가 도시의 중산계급을 이루고 있는 샐러리맨의 정신적 공황을 일컬어 ‘샐러리맨의 공포시대’라고 명명한 것은, 노동자와 농민을 주체로 삼

20) 아오노 스에키치는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1915년 요미우리 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 그 후 기자 생활을 계속하다가 「심령의 멸망」으로 평론가로 데뷔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비롯해 트로츠키의 저작 등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의 문학 비평가로서의 활동은 당시 조선의 프로문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20년대 박영희의 초기 카프 조직론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원동, 「1920년대 박영희의 일본 프로문학론 수용과 자기 맥락화·참조와 인용의 방법을 중심으로」, 『어문학』 135, 한국어문학회, 2017.

21) 해리 하르투니언, 앞의 책, 264면.

22)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와 아오노 스에키치의 ‘샐러리맨’에 관한 견해와 분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민현주, 「근대 대도시의 경험: 일상, 상품, 산책자-짐멜, 벤야민, 곤 와지로, 크라카우어, 아오노 스에키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4장 참조.

23) 青野季吉, 『サラリーマン恐怖時代』, 先進社, 1930, 24頁.

아 전개했던 사회주의 운동이 절정기를 지나가는 시점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샐러리맨’이 그들 자신의 부르주아적 속성과 욕망에서 스스로를 해방하여, 무산계급 운동의 주체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였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물가 상승과 연이은 대공황과 같은 자본주의 위기 위에서 “샐러리맨의 자연발생적 성장”이 가능했고, 이를 깨달은 이들의 “운동이 실천” 된다면, “무산정치운동은 이 사회층 속에서 하나의 유력한 지주를 발견할 것”²⁴⁾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샐러리맨’이라는 계급이 전위의 눈을 통해 발견되고 분석되었던 경위를 드러낸다. 1941년에 발간된 『社會科學新辭典』도 하나의 계급으로서 ‘샐러리맨’을 포착하는 동시에, 1920~30년대의 ‘노동자·농민’ 중심의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들을 정의하고 있다.

샐러리맨이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동시에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대체로 봉급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가리킨다. 그 경우에는 직업상의 종류나 수입액도 전부 무시되고 단지 봉급이 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람만이 샐러리맨의 자격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실제의 용어법을 통해 생각해보면, 샐러리맨이라고 불리는 자는 봉급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그중 보통 하급 정신노동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샐러리맨이라는 말이 때때로 경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을 샐러리맨이라고 부름으로써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모멸을 표현하거나 또는 자신을 샐러리맨이라고 칭함으로써 일종의 자조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²⁵⁾(강조는 인용자)

어쨌든 ‘모욕’이나 ‘자조’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과거 피지배자의 일반

24) 위의 책, 225면.

25) 清水幾太郎, 『社會科學新辭典』, 河出書房, 1941, 151頁(다니하라 쓰카사, 앞의 책, 62~63면에서 재인용).

적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이 흥미하고 있었을 때, 샐러리맨은 그 중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농민과 단결하여 자기 구제를 도모하는데 주저했으며 오히려 역으로 지배자의 권력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기²⁶⁾ 때문이다. 또한 1920년대 말부터 30년 초까지의 경제적 상황은 '샐러리맨'의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었다. 공장 노동자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봉급으로 생활하면서, 회사 내에서는 상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은 이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규정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기에 '샐러리맨'이라는 존재는 노동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포섭의 대상이자, 계급적 각성과 집단적 주체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가해한 존재로서 의미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하게 된 '샐러리맨'은 조선에서도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었던 '농민'과 '노동자'와는 다른 정체성과 계급적 특성을 지닌 '주체'로서, 제국 일본의 산업 재편 과정 속에서 양성된 식민지의 '중간엘리트'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과 직장 속에서는 차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특징들을 공유했다.

세상에 農民이 조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로되 봄이면 種子를 걱정하는 것은 오즉 朝鮮農民이오, '샐러리맨'이 朝鮮에만 있는 것이 아니로되 換節 때마다 입을 옷을 걱정하는 것은 朝鮮의 月給쟁이 뿐이며 심지어 蕩子遊興까지도 朝鮮만에 있는 것이 아니로되 正堂한 會計의 經路가 업시 遊興하는 까닭에 朝鮮의 蕩子遊郎은 술값을 걱정하게 된다. 이와 가타서 朝鮮의 사람은 어느 階級 어느 사람을 勿論하고 봄!하면 이것을 질거운 季節 半가운 時期이라는 것보다 걱정스럽고 感傷의인 것만을 먼저 느끼게 되어 봄을 이야기하는 座席에서 '되스푸링이스센티브멘탈씨-슨!'이라고 하야 西洋婦人을 疑惑케한 것도 朝鮮의 靑年인 것이 고이적은 것 업는 노릇이다.²⁷⁾

26) 위의 책, 152~153면.

조선에서 ‘샐러리맨’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중반부터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샐러리맨’은 조선의 ‘농민’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계급으로 이해되었다. “식량갑을 들게 노흔듯한 ‘콩크리트’의 ‘오파스’ 안에서 들창으로 부러 오는 더운김에 숨이 막혀가서 아로 괴력업는 사지를 책상 위에 의지하고 있는 ‘샐러리맨’의 육체”²⁸⁾는 급료의 인상을 바라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한다는 중산계급의 이미지와 함께 “정신노동”의 문제성을 상기시키는 존재로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36년 시점에서 11만 6348명에 달한 조선의 “도시의 급료생활자”는 농산어촌의 일용생활자, 기타노동자와 더불어 노동계층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다.²⁹⁾ 도시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회문제나 스캔들의 당사자로서 소설 속에 ‘샐러리맨’이 안착하게 된 것도 이 즈음이다.

한편, 조선에서 ‘샐러리맨’이 증가하게 된 것은 식민지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전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가 중첩된 결과이기도 했다. 1930년대 초반까지 조선의 대표적인 사립 전문학교인 보성전문과 연희전문 상과의 취직률은 약 50%였다. 관립인 경성고등상업학교는 90%에 달했으나 조선인 졸업생은 극히 소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인 졸업자들은 주로 관공서와 회사, 은행 등으로 취직하였으며 나머지는 교원으로 진출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샐러리맨 층을 형성한다. 그 런데 고등교육 졸업자들의 취직률은 1935년 후반에 이르러 극적인 개선을 이루게 된다. ‘광산 특수부’으로 불린 광업의 발전이 전문학교의 취업률을 60%로, 경성공업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90%에 가깝게 끌어올리게 한 것이다.³⁰⁾ 이에 따라, 1930년대 후반 이후 조선의 ‘샐러리맨’은 기존의 소

27) 신경순, 「朝鮮 畚의 特異性」, 『조선일보』, 1934. 3. 23.

28) 「사무보다 피곤할 때 곳 회복되는 잠 한숨」, 『조선일보』, 1935. 7. 11.

29) 「봉급생활자 22만」, 『조선일보』, 1937. 6. 19.

30) 경성공업고등학교의 광산과의 수요는 1936년에는 10배에 달하게 되었으며, 연희전문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광산과 방면의 학과를 배 이상 늘리게 되었다. 정선이, 「일

수 '지식인' 계급에 더해 '기술직' 샐러리맨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완성되는 194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원료, 노동력 및 자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 비중이 급속히 줄어들고 기업부문에의 취업경향이 높아지게 된다.³¹⁾

식민지 말 김남천의 소설에서 기술자 유형의 샐러리맨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1930년대 초반까지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기술자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는 상황은 조선 사회의 구조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사상의 전환까지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K기사가 잠깐 밖으로 나간 틈에 방 안을 둘러보며, 아까 오락장을 구경할 때에 은연히 느끼었고, 그 뒤에 목욕탕 속에 몸을 잠그고 앉아서 툭툭히 생각하였던 '기술자의 생활 상태'라는 것을 막연히 머릿속으로 되풀이해 뇌어보고 있었다. 벌써 펍 전부터 기술 방면의 학교의 입학률에 대한 것과, 기술자의 구인난 같은 것에 대한 신문 기사는 많이 보았으나, 취직난이 유례가 없는 시대에서 이들의 대우란 과연 '특등석'의 느낌이 없지 않다고, 지금 눈앞에 이들의 생활을 친히 목도하면서 거듭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었다.³²⁾

기술자 유형 샐러리맨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린 「길 위에서」는 조선에서의 샐러리맨이 사무실에서 '정신노동'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도시 중산 계급층으로서의 샐러리맨과 다른 존재가 될 것임을 예감하게 하는 작품

제강점기 고등교육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 양상과 특성, 『사회와 역사』 77, 한국사회학회, 2008, 28~30면.

31) 김병관, 『일제하 조선인 기술자의 형성과정과 존재양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107면.

32) 김남천, 「길 위에서」, 『맥』, 문학과지성사, 2006, 210면.

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로서, 혹은 노동자와 함께 “사회 운동”에 투신 하였던 형의 곁에서 “상급반으로 조용히 입학 준비에만 골몰”하여 측량기사가 된 K는 역사에서 구제해야 하거나, 모욕이나 자조의 대상으로서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술자인 나는 “싸늘찍한 숫자나 활자 가운데서, 뜨거운 휴머니티를 느껴보는 것”에서 휴머니티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세상을 대하는 근본 태도”에 대해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낀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면서도, 노동자의 생활에는 무심한 그는 기존의 계급적 의미망으로는 포획되지 않는 ‘생산의 윤리’를 체현한다. 식민지 조선의 샐러리맨이 대도시의 소비문화 주변을 배회하며 만성적 빈곤과 부르주아적 교양 사이의 분열을 겪는 존재였다면, 「길 위에서」의 기술직 샐러리맨은 다른 궤적을 그린다. 식민지 지식인들을 지배했던 계급적 대항 요구나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오직 숫자의 세계와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서만 현실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려는 멘탈리티가 새로운 세대의 주체적 양식으로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체현하는 ‘생산의 윤리’는 제국의 동원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도덕주의와도 구별된다. 반복하다시피, 그것은 우선 눈앞의 현실에서 느끼는 주관적 감상이나 민족적 울분을 소거한 채, 자신에게 부여된 기술적 책무를 완수하는 것 자체에서 존재의 자율성과 활력을 구하는 윤리이다. 그리고 그러한 순응은 기술의 발전과 그에 수반되는 저개발 상태에서부터의 탈출이라는 이상 속에서 합리화된다. 전시체제로의 국면 전환이 초래한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광산 특수와 군수 산업 중심의 기술 인력 수요 폭발이라는 구조적 변동은 낙후된 조선의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로서 인식된다. K의 ‘휴머니티’는 그래서 “터널의 천정이 무너지든가, 화약이나 폭발물에 부주의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부상자보다도 사망자를 희망”³³⁾하면서도, “커다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이동하는 수많은

33) 위의 책, 217면.

“인부”와 그들의 “가족”인 “길녀”에게 과자를 건넬 수가 있다. 철도 공사가 계속된다면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의 윤리’는 치명적인 이중성을 노정한다. 피식민지 지식인이 기술적 자율성을 통해 식민지적 정치과잉 상태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고도국방국가 체제가 요구하는 ‘기계 부품으로서의 신체’와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 위험성은 비록 “경쾌하고 건강한” K의 뒷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맥 풀린 초라한 모양” 탓에 언어화되지 못했지만, 그에게서 느낀 “두려움 비슷한 감정”이 예감하는 미래에 어른거리고 있다. 결국 김남천이 주조한 기술직 샐러리맨은 체제 내적 합리성을 추구하되 제국의 총동원 규율에 자발적으로 포획될 수밖에 없는 전시 주체의 징후를 불안한 시선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형성한 ‘생산의 윤리’는 다른 도시 주체들에게 이전·변형된다.

3. 노동력으로서의 경험

기술자 유형의 ‘샐러리맨’은 김남천의 이어지는 소설에서 ‘광산붐’과 ‘전 시경제’로 들쭉거리는 식민지 조선의 경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확장된다. 철도 건설 기술자 김준호와 카페 여급 최영자 간의 연애담을 다룬 「바다로 간다」는 도시(경성, 북지)와 바다라는 상반된 공간으로 향하는 젠더적 욕망의 비대칭성을 드러낸 작품이다. 여기서 ‘도시’와 ‘북지’가 남성 기술자의 생산·식민주의적 팽창 욕망을 대변한다면, ‘바다(해변)’는 여성의 소비주의적·근대적 여가 욕망을 표상하며 식민지 말기 성별 분업화된 욕망의 지형도를 투영한다.³⁴⁾ 문제적인 것은, 소설은 이들의 이야기를 중

34) 조윤정, 「개발된 조선과 해변의 풍속·일제 말기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바다 표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96,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314면.

로 거리의 수많은 광산 브로커들과 겹쳐 놓음으로써 식민지 말의 자본주의적 투기성과 기형적인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이 종로 일대의 여관이나 술집이나 각 음식점들의 손님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외모는 허술하고 때때론 궁기까지 끼었지만, 머릿속에는 언제 구름가튼 공상이 얹히고 눈에는 불타는 의욕을 숨겨두고 입에는 필요에 따라 마개를 비틀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처럼 온실가튼 때로는 폭포가튼 웅변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시대의 총아들이다. 멀리 당할만한 언행이 비일비재이지만 좀처럼 멀리 당하려 하지도 않고 또 아무개도 경홀히 멀리해 버릴 수 없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금과 화폐의 위력을 가장 명확하게 체득하여 제일선에 나서서 활약하는 실천자의 한 부대임에 틀림이 없스니까.³⁵⁾

이처럼 김남천이 묘사한 종로의 군상들은 근대적 생산 메커니즘에서 소외된 채, 오직 ‘화폐의 기호’만을 좇는 식민지적 변칙 자본주의의 산물로 표현되었다. 이들은 내면의 빈곤을 현란한 수사와 일확천금의 망상으로 은폐하며, 당대 경성이 직면한 물신주의의 도래를 증명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공간을 가로지르며, 일상을 구축해 나가는 샐러리맨의 존재는 노동 없는 투기꾼의 내면과 조응하는 형태로 구현되기에 이른다.

『T일보사』(『인문평론』, 1939. 11)는 김남천의 ‘샐러리맨’ 인물형의 내면을 미시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해부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신문사 영업부에 취직하여 경성에서 “비참한 싸라리-맨” 생활을 하게 되는 ‘김광세’가 2.26 사건을 계기로 주식 시장에서 거대한 부를 획득하여 신문사를 인수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방의 금융조합 직원으로 생활하던 ‘김광세’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가까스로 신문사에 판매부에 입사하게 되는

35) 김남천, 「바다로 간다(11)」, 『조선일보』, 1939. 5. 18.

데, 그는 회사 내의 고학력 기자나 임원에 대한 강한 콤플렉스를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그의 열등감은 지식과 문화 자본을 독점한 인텔리겐차 계급과, 오직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판매해야 하는 하급 사무직 노동자 간의 계급적 괴리에서 비롯된다.

교양과 학력 수준에서 다른 사원에게 뒤쳐져 있음에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는 고향에서 가져온 돈을 양복과 구두, 시계를 구입하여 도시 생활자로서의 외향을 꾸미는데 소비하는 한편, 남은 돈은 동신(東新) 주식에 전부 쏟아 붓는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내면의 문화적 결핍을 물질적 기호로 만회하려는 방어기제이자, 스스로를 '도시적 주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발버둥에 가깝다.

그리고 이 행위의 정당성을 “나는 일만원의 ‘켓슈’가 서울을 지배하고 조선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세계제패의 고등수학의 나의 야심이고, 그것을 훌륭하게 풀어놓았을 때 나는 성공과 출세를 나의 것으로 하겠다고 생각할 것이”³⁶⁾라는 자신의 고급산수 위에 포개어 놓는다. “문화적 활동보다도 월급을 소중히 여기고, 원고지보다도 화폐, 문필보다도 주판을 묵업고 가치있게 여기는 사람”³⁷⁾으로 평가되는 ‘김광세’의 모습은 동시기 ‘샐러리맨’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한편, 상품의 소비를 통해서만 자신을 내어보일 수 있는 자본주의적 삶의 단면을 포착하고 있다.

소설은 김광세의 내면을 서술할 때 “켓슈”, 상품의 구입 비용, 주식 시장의 등락률과 같은 계량화된 수치들을 집요하게 배치한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들이 이들의 지위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는 경성을 뒤흔든 투기 열풍과 전시 생산력주의가 피식민지인의 무의식 깊숙이 각인시킨 물신주의의 도래를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김남천은 스스로를 시장에 양도 가능한 ‘노동력’이자 ‘교환가치’로

36) 김남천, 「T일보사」, 『인문평론』, 人文社, 1939. 11, 153면.

37) 위의 글, 186면.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식민지 주체의 미시적인 심리적 굴절을 서사화할 수 있었다. 그는 직장 내부의 권력관계에서 소외된 하급 사무직 샐러리맨이 화폐라는 전능한 기호를 매개로 도시적 주체로 승인받고자 발버둥 치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전시체제하의 자본 자원화 기획이 인간의 신체를 어떻게 상품화된 욕망 체계 속으로 포획해 들어가는지 관찰하고 있었던 셈이다. 김남천은 기술직 샐러리맨의 ‘생산 윤리’와 브로커의 ‘투기성’이 결합하는 추세를 통해, 총동원 체제가 요구하는 ‘생산력주의’와 그 이면에 도사린 물신주의적 주체의 물질적 욕망을 직조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식민지 말 기술직 및 사무직 샐러리맨의 등장을 단순히 도시적 세태의 변화로만 읽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문학이 당대의 경제적 조건과 맺는 구조적 위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김남천이 「바다로 간다」와 「T일보사」를 통해 ‘기술자’와 ‘영업부원’이라는 새로운 샐러리맨의 내면을 해부하기 시작한 사태는, 식민지 조선의 서사가 전시기 자본주의 생산관계 안으로 밀착해 들어가는 징후적 국면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물들의 물신주의적 욕망과 콤플렉스를 추적함으로써, 총동원 체제가 요구하는 ‘생산력주의’의 가치 체계와 화폐의 전능성이 피식민지인의 일상에 어떻게 각인되는지를 서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미야마 이치로는 식민지배와 침략이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제국화 속에서 문학적 표현 또한 변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동아공영권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학 표현의 변화 속에는 건설이나 생산이라는 거대한 테마의 등장이가로놓여 있으며, 이러한 테마가 나타내는 일반적인 목적에 문학 표현이 종속되어 간 전개가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거기에 암시되는 것은 생산이나 건설이라는 목적 하에 기계부품으로 자리매김되는 인간의 모습이며, 생산이나 건설이 인간을 대신하여 유일하게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태이다.³⁸⁾

주지하다시피, '생산'과 '건설'에 대한 강조는 국민문학을 둘러싼 담론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최재서는 『국민문학』 창간호 권두언인 「국민문학의 요건」에서 '국민문학'을 '고도국방체제'에서 '자기의 천직을 깨닫고 적극 국책수행으로 매진하는 일로 정의했다. 고도국방국가체제라는 매커니즘 아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의 기술로 봉공하는 직분의 인간·기술화된 인간이야말로 '국민문학'이 그리려 했던 인간상이었다.³⁹⁾ "작가분들에게 광산이나 농촌, 수산학교 등지에 가서 생산부문에 최대한 접촉할 기회"(가라시마 다케시)를 늘려야 한다거나, "국책적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글 등을 참고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⁴⁰⁾(백철)하다는 의견은 『국민문학』 좌담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었다. 문제는 작가의 개성이라기보다 생산 그 자체이며, 생산에 모든 생활을 맞춘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생산을 표현하는 문학은 어떻게 이해하고 포착할 수 있을까. 벤야민은 문학이라는 행위가 생산관계 내부에서 수행된다는 사실과 함께 같이 지적하였다.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나온 시대의 생산 구조와 예술 작품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나? 작품은 과연 시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시대에 대항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시대를 뒤엎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불려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우선 피하려고 한다. 나는 '어떤 작품이 시대의 생산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서 있는가'를 물어보기 전에 '그 작품이 생산관계 안에서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다. 이 질문은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과정 속 문학적 관계들 안에 속한 작품의 기능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작품의 문학적인 기술

38) 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역, 『폭력의 예감』, 그린비, 2009, 263~264면.

39) 황호덕, 「매커니즘으로서의 국가와 비봉쇄적 국가」,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477면.

40) 문경연 외,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2, 46~54면.

(literary technique)을 향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⁴¹⁾

벤야민이 “생산관계의 문서화(文書化)”라고 지칭한 것은 노동력을 둘러싼 상담(商談) 과정에 인간이 포섭되는 사태와 관련된 이러한 내부관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술(記述)을 의미한다. 도미야마 이치로는 이 문제를 노동력으로서 스스로를 제시하는 행위에 새겨진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노동력으로서의 경험이 어떤 말이나 문체로 기술되며, 어떤 대리(代理)를 통해 정치화하는가, 또 그 정치화하는 정치공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이와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총동원체제’를 전후로 한 시기에 급부상하게 된 경제담론이다. 김인수에 따르면, 중일전쟁의 발발로 본격화된 총력전, 총동원은 일차적으로는 일본 ‘내지’로 통칭된 자민족의 동원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식민지제국’ 일본에서의 식민지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제국 일본의 전쟁 국면에서 식민지 조선의 농촌노동력과 쌀은 철도와 선박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출되었다. 전쟁에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만물을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발상 위에서 파악하는 태도(‘자원화’)와, 시장의 경제합리성을 희생하면서도 생산물량의 증가와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는 사상 및 정책(‘생산력주의’)⁴³⁾이 결합된 ‘총동원체제’는 인간과 자원의 구별을 무화시키며, 정주하게 하거나 이동시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선의 노동력과 쌀에 대한 종전의 표상이 크게 변하게 된다. 제국의 식량시장을 교란하고 일본농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서 평가되어

41) Walter Benjamin, The Author as Producer, Address at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Fascism, Paris, April 27, 1934. 위의 인용문은 오성진의 번역과 해당 웹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원문을 참조하였다. <https://generallylucky.tistory.com/273>

42)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265면.

43) 김인수, 「총력전기 식민지 조선의 인류(人流)와 물류(物流)의 표상정치」, 『서강인문논총』 4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99~100면.

왔던 조선의 쌀, 농촌에 과도하게 퇴적되어 신음하고 있다는 '과잉노동력' '실업인구'의 표상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전쟁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자원으로 가치가 일변했던 것이다.⁴⁴⁾ '전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사회의 합리화를 꾀하려는 '전시변혁'의 상상이 대두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조선의 노동력과 쌀의 가치변화와 함께였다.

조선인 직공의 임금은 내지인 직공 임금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를 내지의 내지인 노동자와 비교해 봐도 대체로 같은 비율이 되므로 조선인 노동력이 얼마나 저렴한가를 알 수 있다. 물론 만주국이나 북지(北支)에서 만인(滿人)이나 지나인(支那人)의 노동력은 조선보다도 더욱 저렴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 근대적 공업에 적당한 초등교육을 받은 일본적 훈련이 된 노동력을 얻는 것이 심이 곤란하다. 따라서 임금은 싸더라도 노동 능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이는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크게 이익은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조선은 만주국보다도 초등교육 보급이 약 20년이나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초등교육보급 계획이 완전히 실시될 경우에는 쇼와 21년이 되면 약 200만 아동의 수용력을 가진 학교가 증설이 되므로 이 점에서 조선은 내지 자본에게 극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⁴⁵⁾

“오늘날 조선경제는 전시체제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현저(顯著)한 발전 코스를 밟고 있다”는 인정식의 주장은 내선일체론 안에 동아협동체론의 논리를 집어넣음으로써 조선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제국의 질서를 추인하는 가운데 조선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는 그의 입론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⁴⁶⁾를 엄밀하게 따질 여유는 없지만, 낙후된 식민지(고향)로부

44) 위의 글, 120면.

45) 인정식, 「戰時體制下の朝鮮經濟(1)」, 『東洋之光』1-2, 1939. 2; 홍종욱 편,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69면.

터의 탈출이라는 꿈이 인간의 노동력화라는 식민주의와 조우하고 있었음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 생산, 국민화라는 새로운 이상은 식민지 말의 문학장을 매워나가기 시작한다.

4. 고향으로부터의 이탈

194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조광』에 연재된 「구름이 말하기를」(『조광』, 1942. 6-11)은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같은 시기에 발표된 다른 작품⁴⁷⁾에 비해 별다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 동력은 기존의 ‘풍속’적 세태 묘사를 압도하는 ‘노동 그 자체에 대한 강렬한 회구와 집착’이다. 그러므로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이 노동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가에 있다.

소설은 가족을 뒤로 하고 서울행 기차에 오른 옹호의 상념으로 시작된다. 그는 평안남도 성천 소재 우체국에서 일을 한 인물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고 있는 중이다. “보통학교 밖에 되지 않는 학력”과 오래도록 계속된 가난이 고향을 등지게 한 것이다. 같은 열차에 탄 “연희전문의 졸업생”이 빌려준 책 속의 「가시리」를 읽으며 고향의 목가적인 자연 풍경을 떠올리지만 이내 “그러나 이 거리에 어쩌서 우습과 기쁨

46) 홍중욱 편, 위의 책의 3장 해제 참조.

47) 김남천은 「구름이 말하기를」이 발표되기 직전인 1942년 3월 『국민문학』에 「등불」을, 연재가 중단된 직후인 1943년 1월 『국민문학』에 「어느 아침(感る朝)」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조광』에 「신의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신의에 대하여」를 마지막으로 해방 전까지 소설을 쓰지 않았던 그의 이력을 놓고 보면 「구름이 말하기를」 또한 식민지 말 김남천의 문학과 글쓰기가 처해있던 곤경의 실마리로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동재, 「식민말기 김남천 소설과 경성대화숙의 거리-「등불」의 서간체와 액자형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2, 273~274면.

만이 있지 않고 오욕과 우수와 슬픔이 있는가"라면서 고향 속에 자신과 단절하려고 한다. 오욕의 원인은 그의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기생이 되어 가계를 책임지는 누이와 아편중독자인 계부, 어머니와 어린 이복동생으로 구성된 옹호의 가족은 「남매」(1937), 「소년행」(1937)의 '봉근', 「무자리」(1938)의 '운봉'과 유사하다. 약국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봉근과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광산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운봉의 근미래라 할 만한 옹호는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23살 청년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다면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옹호의 머릿속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생활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에의 욕구이다.

“아름답게 살아 보자, 생명의 충실감을 느껴가며 살아 보자, 감격을 가지고 하로 하로를 살아 나가 보자”

“힘껏 일하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 담홍이도 경주도, 그런 것을 어러만지는 탕자도 그것에 붙어사는 기생충같은 가족들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서울, 낫설은 고장에 몸을 던지고 뼈가 이스러지도록 일하고 살아 보자, 인제 그러한 서울이 눈앞에 닥아오는 것이다. 아양하고 우렁찬 기적이 운다, 기차는 목적지에 가까이 올 사록 속력을 빨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위와 같은 옹호의 노동에 대한 강렬한 욕망은 다소 의아한 구석이 있다. 그는 이미 우체국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던지고 뼈가 이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로 출향을 스스로 설득하는 것은 자연-고향-가족이라는 세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그려지는 미래를 막연하게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제적 생존을 넘어 고향이라는 가치적 파산 지대로부터 탈출하여 근대적 주체로 거듭나려는 '정신적 정화(수양)의 기획'이 작동하고 있다. 그

는 자연-고향-가족이라는 세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그려지는 미래를 막연하게 상상하며 출향의 정당성을 스스로 설득한다.

소설에서는 우체국을 그만두고 서울로 향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옹호의 연인인 ‘경주’라는 인물과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있다. 경주 역시 담홍과 같은 기생인데, 옹호는 싱가포르의 함락(1942.2.15.)을 기념하는 ‘축승(祝勝)일’에 그녀가 ‘이자와요오코(伊澤洋行)’의 주인인 윤택규가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윤택규를 향한 질투심과 경멸감에 몸서리를 치던 옹호는 축승 행사가 끝난 저녁 경주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윤택규가 술손님으로 와있는 것을 목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옹호는 경성에 도착하여서도 불현듯 떠오르는 고향에서의 추억과 경주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을 “신의 뜻”으로 억눌러가면서 “정신의 훈련과 지혜의 수련”으로써 정화해 나가겠다고 거듭해서 다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옹호는 낙후된 고향과 가족, 기억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국민복을 입은 남자들이 가득한 경성에 자신의 행복을 어떤 방법과 직업으로 성취해야 할지 막연한 상태로 있다.

옹호는 경성에 도착하여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동향 출신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는 박중호라는 인물을 찾아간다. 그리고 저택 한켠에 있는 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박중호의 호출을 기다리던 와중에 그의 아들인 박영운을 만나 경성에 오게 된 계기와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된다. 박영운은 옹호에게 “최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아무 생각두 없습네다, 그저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을까 저두 거의 마음을 잘 표현하기 힘듭니다만은 막연히 말해서 그저 훌륭하게 되구 싶다는 욕망은 있습니다. 일생을 우편국에서 하가거나 세면서 보내면 무에

되느냐는 생각두 없는 건 아녘네다. 그러나 꼭 체신국장이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건 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훌륭하게 되겠다는 건 무엇이 되구 싶다는 생각보다도 성실되게 살구 싶다. 난 보람이 있게끔 살구 싶다는 생각이 더 큼니다.”

“무엇이 됐으면 좋을지 가르켜 주십시오. 그것을 찾는 것두 서울 온 하나의 목적입네다. 되든 안되든 기회가 많은 곳에서 자기의 실력을 검토하고 힘을 길러야 안합니까. 무엇이 꼭 되고싶다는 목적이 없는 건 역시 잘못이지요? 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⁴⁸⁾

옹호는 막연하게 “훌륭하게 되고 싶다”고 답하면서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터인 “보통문관시험”을 친다든가 “의사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미래를 잠시 그려보고, 그러한 꿈을 떠올린 자신이 우습다고 생각한다. 옹호의 대답을 들은 박영운도 그럴 법이 있겠냐는 듯 피식 웃지만, 이윽고 자신은 옹호의 처지에 맞는 직업을 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무엇을 하라고 따져서 권할만한 아무런 자신이 없”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모습을 발견한다. 그렇기에 ‘-이 된다’라는 미래를 그려낼 수 없는 옹호의 답변에 대해 “무엇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든 진실히 성실히 보람있게 산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가”라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처럼 이념과 목적이 차단된 전시체제기 속에서 소설은 옹호가 가진 노동의 목적과 이념을 논박하지 못한 채, 관찰자의 시선에서 식민지 청년들의 전망 부재와 무력한 내면을 통념적으로 비출 뿐이다. 박종호의 저택에 기거하면서 취직처를 기다리던 옹호는 결국 일자리를 추천받지 못하고, 친구인 오길수의 소개로 결국 초음정(初音町)(현 중구 오장동)에 자리 잡고 있는 “기다까와 빼꾸라이또 공업소”라는 작은 공장에 취직을 하게

48) 김남천, 「구름이 말하기를(2)」, 『조광』, 1942. 7, 217면.

된다. 베크라이트는 전시장태 속에서 금속사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면서, 생활용품으로 활용되었던 합성수지이다. 옹호는 공업소 2층 다다미방에서 기거하면서 “하루에 오십전, 휴일은 한달에 두 차례, 노동시간은 계절에 따라 출퇴근이 다르나 열시간 노동, 점심시간이 삼십분, 오전 열시와 오후 세시에 십오분씩 휴게, 야업 두 시간 이상이면 수당 삼십전”⁴⁹⁾이라는 조건으로 일하게 된다. 옹호는 자신이 앞으로 일하게 될 “정신의 도장”이 자신의 상상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한다.

이러한 거리의 한 가운데 기다까와 빼꾸라이또 공업소는 자리잡고 앉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가운데라고 하여도 거리에서 보기는 그 옆집 세탁소나 오텅집이나 독사뱀 파는 집과 대차가 있는 것이 아니오, 그대로 낡디 낡은 빠락크, 안이 덮여다 보이지 않도록 유리를 갈아서 낀 오뚝한 이층건물, 사람으로 이르면 이마뺨이라고 할만한 곳에 낡은 상철로 「북천빼꾸라이또공업소」라고 써 붙인 간판으로 해서, 그 앞을 통행하는 사람은 이 순회극단의 무대장치같은 건물이 세탁소와 오텅집과 두붓집과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중략) 까맣게 꺼슬고 더럽이 탄 바람벽에는 천정과 잇대어서 일장괴, 황국신민의 서사, 사업장소 설치허가서의 세 액면이 쭈루루니 걸려 있고, 다소 어울리지 않는 표어였으나 생산확충, 근로보국의 두 문꾸가 기둥 위에 흰 종이로 반딧이 써서 붙이어 있다.⁵⁰⁾

“신식으로 꾸민 대장간의 다소 큰 것”과 다를 바 없는 공업소에서 일하게 된 옹호는 끝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행복’과 ‘수양’이라는 가치로 그려지지 않는 미래를 꿈꾸고자 한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게 된 것을 인생의 고난으로 받아들인다. 객관 세계에 대한

49) 김남천, 「구름이 말하기를(6)」, 『조광』, 1942. 11, 182면.

50) 김남천, 위의 글, 181면.

총체적인 인식이 거부된 곳에서 노동력으로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사태를 암시한다. 공장 벽면에 나란히 걸린 '생산확충, 근로보국'의 표어와 일장기, 황국신민의 서사는 옹호가 열망했던 '정신의 도장'의 실체가 국가 이데올로기와 규율에 의해 신체가 포획되는 장소임을 드러낸다. 나아가 김남천이 의미심장하게 묘사하고 있듯이, 공업소 양옆의 '꽃가게와 장의사'라는 삶과 죽음의 경계적 공간 배치는 근대적 노동을 통한 주체의 구원 기획이 철저히 유예되거나 파산할 것임을 서사적으로 징후화한다. 공업소 옆 '병목정'(현 중구 쌍림동)에는 '인사소개업 영업주 기무라 하루꼬, 구멍 박춘자'라는 간판이 있다.

인사소개업과 신정이나 병목정이 가지는 성능에 대해서 옹호가 확실한 지식을 가진 것은 그로부터 일개월이 지내서인데 그 뒤로 시골 색시의 보따리 싸들고 나가든 뒷모양이 새록 새록 머릿속에 살아나서, 그는 몇 번인가 꿈을 꾸기까지 하였다. 그 꿈은 그의 누이동생 담홍이와 경주가 어떤 몸쓸 사내놈한테 속히어서 인사소개업자를 거쳐 신정유곽에 팔려온 것을 옹호 스스로가 목도해야 하는 불쾌하기 비길데 없는 광경이었다.⁵¹⁾

결국 옹호의 삶은 자신이 애써 눈돌리려 했던 현실의 오욕(유곽의 인사소개업소)과 전시체제하의 근로 담론 사이에서 파편화된다. 노동을 통해 구원받고 훌륭한 '도시적 주체(샐러리맨)'가 되려 했던 신체는, 숫자로 환산되는 교환가치이자 국가의 기계적 부품으로 전락하는 소외의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소설은 옹호가 애써 떠나오고자 했던 고향의 누이동생 담홍과 옛 연인 경주가 어느 사내에게 속아 신정 유곽으로 팔려오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는 장면과 함께 중단된다. 행복은 노력에 있는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을 설득하는 옹호에게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한 가족의 모습

51) 김남천, 위의 글, 186면.

과 기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누이동생과 경주는 ‘불쾌한 꿈’으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생산과 노동이 문학 표현의 한복판으로 진입하는 사태 속에서, 단절하고 개선되어야 할 현실은 ‘불쾌한 꿈’으로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는 “인사소개업의 간판과 살림과 가장지물이 지저분한 향간”에서 눈을 돌려 “큰 저택”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자신이 기거하게 될 작은 ‘인생의 도장’에 정좌하고 앉아 기도를 올린다. “괴로움과 고통을 넘는 곳에 행복이 깃들여 있어 지라”하고 말이다.

「구름이 말하기를」의 옹호가 당도한 파국은 자본주의 소비문화 주변을 배회하는 ‘소비자’의 정체성과 계급적 대항력을 지닌 ‘노동자’의 정체성 그 어디에도 온전히 착종하지 못하는 식민지 켈러리맨의 구조적 진퇴양난을 집약하여 보여준다. 이는 소설 속 개인의 심리적 파편화에 그치지 않는다. 1942년이라는 전시기 시공간은 총동원체제의 물적·인적 통제가 최고조에 달해있던 동시에, 근대 자본주의적 주체의 범주 자체가 유동화되던 시기였다. 국가에 의한 강력한 노무동원령과 임금 통제는 노동시장을 해체하여 ‘노동자’를 국가의 인적 물자로 재편하고 있었고, 배급제의 실시와 물자 제한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욕망을 실천하던 ‘소비자’ 정체성을 파산시켰다. 이처럼 고정된 주체 범주들이 유동화되는 국면 속에서, 낙후된 고향의 오욕으로부터 탈출하여 당도한 옹호의 맹목적 노동 회귀와 노동의 현장에서 발현되는 수양 담론은 징후적이라 할 만하다. 이념과 전망이 차단된 상태에서 도달한 ‘베크라이트 공업소’는 근대적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의 공간이라기보다, 황국신민의 서사와 ‘생산확충, 근로보국’의 표어 아래 신체가 철저히 국가 이데올로기에 포획되는 규율의 도장일 뿐이다. 옹호가 애써 눈돌리려 했던 고향의 오욕이 불쾌한 꿈의 형태로 끊임없이 회귀하는 사태는, 전시 통제경제 시스템 안에서 오직 숫자로 환산되는 노동력으로만 생존을 유예해야 하는 식민지 말기 켈러리맨의 실존적 심연을 폭로한다.

옹호가 꿈꾼 근대적 노동은 자아를 실현하고 낙후된 고향의 오욕을 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국가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공장 안에서 주체성을 박탈당한 순수한 '노동력'으로 탈바꿈될 뿐이다. 동시에 그가 끝내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경성의 "큰 저택"과 소비적 화려함은, 결핍된 내면을 물질적 기호로 승인받고자 했던 「T일보사」의 김광세와 공명하며 그를 영원한 '소비자'의 미련 속에 묶어둔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 안에서 주체적 결단을 내리는 '노동자'로 각성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국경과 제국의 통제를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소비자'로 존재할 수도 없는 옹호의 분열된 신체는, 전시체제가 통제경제 속에서 오직 숫자로 환산되는 교환가치로만 생존을 유예해야 하는 식민지 말 샐러리맨의 태생적 한계와 소외의 심연을 고스란히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총동원체제가 김남천 소설에 등장하는 '샐러리맨'의 표상을 전시 통치성과 자본주의적 노동력 배치의 교차점이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고자 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조선에 급증한 화이트칼라 및 기술직 샐러리맨 군상은 농민·노동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계급적 멘탈리티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부르주아적 문화생활과 합리성을 지향하면서도 회사 조직 내부의 차별과 일상의 만성적 빈곤 속에서 자조와 불안안을 통과하는 주체로서 발견되고 서술되었다. 김남천은 이러한 샐러리맨의 내면을 지배하는 '속물근성'과 '편집증적 열등감'을 사실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광산 붐, 주식 투기, 그리고 전시 생산력주의가 피식민지인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순간을 포착해 냈다.

이러한 표상을 계보학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샐러리맨을 둘러싼 담론의 궤적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크라카우어가 포착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양계슈텔레(Angestellte)’가 상품화된 도시 공간 속에서 공동체적 신념을 상실한 채 형이상학적 불안과 고독을 겪는 중간 계급의 초상이었다면, 아오노 스에키치가 명명한 ‘샐러리맨의 공포시대’는 프롤레타리아화된 경제적 현실과 부르주아적 문화적 열망 사이의 파괴적 모순이 낳은 정신적 공황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샐러리맨’을 둘러싼 담론이 이 주체들을 무산계급 운동으로 포섭하거나 계급적 해방의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총동원체제 하의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공간은 이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실존적 딜레마를 강제했다.

특히 김남천 소설의 샐러리맨들이 보여주는 한계, 즉 체제의 모순을 인지하면서도 집단적 각성이나 저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상의 안위와 수양의 담론으로 함몰되는 양상은 징후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는 제국의 총동원 규율과 자본의 감응 체계가 식민지인들의 신체를 어떻게 ‘순응적인 노동력’으로 포획하고 재배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적 증거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제국 체제를 초월하거나 균열을 내는 혁명적 주체가 될 수 없었으나, 통제경제의 틈새에서 경제적 생존과 입신출세를 모색하는 ‘경제적 인간’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김남천이 식민지 말기 소설을 통해 재현한 ‘샐러리맨’은 자본주의적 주체의 소설적 기원을 추적하는 데 있어 풍부한 징후들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뚜렷한 서사적 한계 또한 노정하고 있다. 이 인물들은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구체적인 노동 프로세스나 직장 생활의 실태를 전경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K기사의 도면 작성과 노무 관리, 김광세의 영업부 판매 활동, 옹호의 합성수지 가공 노동 등은 언제나 인물들의 연애 드라마, 주식 투기, 혹은 내면적 콤플렉스를 추동하기 위한 배경이나 조건으로만 기능할 뿐이다. 이러한 생략은 전시 검열 체제 아래에서 식민지 노동 현장의 구조를 직접 전경화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세대적 사실과 인물의 ‘속물성’ 자체를 구현하는 데 집중했던 김남천 고유의 ‘풍속문학론’이 지닌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였다.

노동의 물질성을 상실함으로써 이들 샐러리맨들은 체제에 능동적으로 군열을 내는 실천적 역능을 획득하지 못한 채, 전쟁이 가속화하는 인적 물적 이동과 그 파국적 결말을 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시스템을 내면화하며 성장한 이들의 정체성이 해방 후 남한 근대화의 주도 세력으로 연속된다는 사실은 이 표상들을 재독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 준다. 식민지 조선의 산업구조와 해방 후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남한의 경제발전은 식민지 시기 육성된 엘리트 사무직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일례로 해방 후 남한의 금융계를 주도한 조선식산은행원들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는 엘리트의식과 국가 정책에 대한 동화, 은행의 가족주의경영과 권력관계 등은 식민지 경험 속에서 배양된 것이었다.⁵²⁾ 이러한 관행과 문화를 구성해 나간 식민지 말 한국인 행원은 전국 70여 점포의 1,5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직장 내에서 여느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받으면서도 '내선일체'의 사상을 보다 쉽게 체현하며 식민통치의 선전 주체로서도 행위하게 된다.⁵³⁾ 또한 식민지기에 입신출세한 이들은 해방 이후 한국 보수층을 이끌거나 저변을 형성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의 '샐러리맨'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내면화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이 논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장편 『사랑의 수족관』(1939)과 『1945년 8. 15』(1945)의 '이신국'과 『낭비』(1940~1941)의 '백인영' 등과 같은 기업가 혹은 고위

52) 조선식산은행원들의 식민지 체험과 그 유산에 관한 논의로는 정병욱, 「조선식산은행원, 식민지를 살다」, 『역사비평』 78, 역사비평사, 2007; 정병욱, 「해방이후 식산은행원의 식민지 기억과 선택적 인식: 행우회 잡지 『무궁』(1946-1953)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선재원, 「한국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1918~1953」, 『경영사학』 25-4, 한국경영사학회, 2010 참조.

53) 정병욱, 「조선식산은행원, 식민지를 살다」, 『역사비평』 78, 역사비평사, 2007, 335~336면.

금융 테크노크라트들이다. 하급 기술직이나 영업부원과 달리 이들은 조선의 재계를 막후에서 움직이는 인물로 등장한다. 식민 권력의 전시 금융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집행하는 이들은 ‘식민지 통치 권력 및 거대 기업자본의 파트너이자 대리인’이라는 위상을 지닌다. 또한 이들이 보여주는 엘리트 의식, 가족주의적 경영 방식, 국가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은 일 시적인 세태 묘사를 넘어선다. 이렇게 보면, 식민지 말의 ‘샐러리맨’이라는 표상은 전시 체제 하에서 진행된 식민지 정책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자본주의적 주체의 한국적 기원이라는 논제에 있어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남천,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

김남천, 『맥』, 문학과지성사, 2006.

김남천, 「구름이 말하기를」, 『조광』, 1942. 6-11.

김남천, 「T일보사」, 『인문평론』, 1939.

2. 단행본

문경연 외,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2.

채호석,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소명출판, 1999.

하신애, 『아시아 트러블』, 앨피, 2018.

홍종욱 편,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황호덕, 『벌제와 제국』, 새물결, 2011.

다니하라 쓰카사, 이은주 역, 『샐러리맨의 탄생』, 소명출판, 2025.

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역, 『폭력의 예감』, 그린비, 2009.

피터 게이, 조한욱 역, 『바이마르 문화』, 고유서가, 2001.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역, 『역사의 요동-근대성,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휴머니스트, 2006.

靑野季吉, 『サラリーマン恐怖時代』, 先進社, 1930.

3. 논문

김병관, 『일제하 조선인 기술자의 형성과정과 존재양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학위논문, 1996.

김인수, 「총력전기 식민지 조선의 인류(人流)와 물류(物流)의 표상정치」, 『서강인문논총』 4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85~127면.

민현주, 「근대 대도시의 경험: 일상, 상품, 산책자-집멜, 벤야민, 곤 와지로, 크라카우어, 아오노 스에키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선재원, 「한국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1918~1953」, 『경영사학』 25-4, 한국경영사학회, 2010, 97~113면.

이동재, 「식민말기 김남천 소설과 경성대화숙의 거리-「등불」의 서간체와 액자형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247~279면.

이원동, 「1920년대 박영희의 일본 프로문학론 수용과 자기 맥락화-참조와 인용의 방

- 법을 중심으로-, 『어문학』 135, 한국어문학회, 2017, 271~300면.
- 이창남, 「베를린 직장인의 문화적 유목 - 크라카우어의 1920-1930년대 에세이들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144, 한국독어독문학회, 2001, 181~206면.
- 정병욱, 「조선식산은행원, 식민지를 살다」, 『역사비평』 78, 역사비평사, 2007, 322~357면.
- 정병욱, 「해방이후 식산은행원의 식민지 기억과 선택적 인식: 행우회 잡지 『무궁』 (1946-1953)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221~247면.
- 정선이,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 양상과 특성」, 『사회와 역사』 77, 한국사회사학회, 2008, 5~34면.
- 조윤정, 「개발된 조선과 해변의 풍속 일제 말기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바다 표상 고찰」, 『현대소설연구』96,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289~331면.
- 차승기, 「임화와 김남천, 또는 세대와 풍속의 거리-1930년대 후반 전환기의 문학적 대응들」, 『현대문학의 연구』 25,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83~117면.
- 황지영,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경제적 인간' 연구」,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212~238면.

<Abstract>

Daily life in colonial urban space
and the representation of 'salary man'

– Focused on Kim Nam-cheon's Novel at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Park, Hyung Jin

This study re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the 'salaryman'(salaried income earner) in Kim Nam-cheon's novels during the Total Mobilization period from a micro-polit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intersection between wartime governmentality and the deployment of capitalist labor power. The white-collar and technical salarymen, who rapidly increased in colonial choson after the mid-1930s, possessed a unique class mentality distinct from that of peasants and workers. Aspiring to bourgeois cultural life and rationality, they were nevertheless contradictory subjects who navigated self-deprecation and anxiety amidst chronic daily poverty and organizational discrimination.

Through works such as *Going to the Sea*, *The T-Ilbo*, and *As the Clouds Say*, Kim Nam-cheon realistically depicted the 'snobbery' and 'paranoiac inferiority complex' ruling the inner worlds of these salarymen. In doing so, he sharply captured how the mining boom, stock speculation, and wartime productivism ingrained fetishism into the minds of the colonized, while capturing and redistributing their bodies into conformist labor power. Notably, the way these characters collapse into discourses of daily comfort and personal self-cultivation is highly symptomatic. They definitively declare the advent of the 'economic man'(homo-economicus)

seeking economic survival and social advancement within the crevices of a controlled economy.

The representation of the salaryman portrayed by Kim Nam-cheon extends beyond a transient depiction of social customs in the colonial era. It offers a crucial genealogical clue for tracing the 'Korean origins of the capitalist subject,' as it connects directly to the collective identity of the white-collar elite who later drove South Korea's modernization and economic growth after liberation.

Key words: Kim Nam-cheon, Labor force, salaryman, daily life, total mobilization system

투 고 일: 2026년 5월 18일

심 사 일: 2026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6년 6월 23일

수정마감일: 2026년 6월 28일